

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
경제부총리 모두발언(1.26일)

- 지금부터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 운용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오늘 논의할 안건은 ①2023~2025년 EDCF 중기운용방향, ②EDCF와 연계한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및 ③보건·의료분야 EDCF 인프라 지원 고도화 방안입니다.

[① 2023~2025년 EDCF 중기운용방향]

- 먼저 2023~2025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개도국의 경제여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,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·디지털 전환 등 개발재원 수요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.
- 이에 정부는 EDCF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함으로써,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.
- 구체적으로는 올해 EDCF 사업 승인규모를 작년대비 0.7조원 증가한 3.8조원까지 확대하고, 향후 3년간(23~25년) 총 승인 규모는 11.7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 * '22~'24년 11.4조원
- 이와 함께, 개도국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그린·디지털 부문에 EDCF 재원을 집중 투입하여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,
- 지역별로는 경험 필요성이 큰 아시아에 사업을 집중하고,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·중남미 투자도 확대함으로써, EDCF를 통한 우리기업의 진출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.
- 또한, 수원국 경제위기 모니터링 등 수원국 위기관리를 강화하는 한편, 수원국에 홍수·가뭄 등 재해로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차관을 통해 즉각 지원에 나서겠습니다.

[② EDCF와 연계한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]

□ EDCF와 연계해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.

- 그간 EDCF는 총 58개국 대상 230억불 규모('22년말 누적)의 개도국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면서, 개도국 경제발전과 함께 우리기업의 해외진출도 측면 지원해왔습니다.

□ 또한, 인니·필리핀 등 EDCF 주요협력국들이 소득 성장으로 몇년 내 구축성 원조 대상국을 졸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* 사업 참여 자격을 공여국 기업으로 제한(1인당 GNI 4,256\$ 미만, '22.7월 기준)

- 이후에도 우리기업이 수주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대응책을 모색하겠습니다.

□ 향후에도 경험확대 가능성이 높고,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별 중장기 지원 한도(F/A)를 확대하는 한편,

* **Framework Arrangement** : 수원국과의 양자협정으로, EDCF 지원기간 한도 설정 (인도-르완다-코트디부아르) F/A 신규체결, (베트남-방글라데시) F/A 확대갱신 추진

- 우리기업 관심이 높은 1억불 이상 대형인프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, 복합금융 지원(EDCF+EDPF+수출금융)도 확대하겠습니다.

[③ 보건·의료분야 EDCF 인프라 지원 고도화 방안]

□ 마지막으로 보건·의료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EDCF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.

- 유·무상 협력이 가장 활발한 보건·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계획 수립부터 사후지원까지 단계별 협력전략을 담은 패키지 모델을 구축하고 대내·외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- 중장기적으로는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교통, ICT 등 다른 분야에서도 EDCF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모델의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.

□ 지금부터 안건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.